

나혜석의 시를 통해본 여성의식 연구*

구명숙

국문초록

본고는 나혜석의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나혜석은 주로 산문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산문 중간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그 내용을 강조하거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작품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나혜석의 시작품들을 중심으로, 그가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여성의식을 살펴보았다.

그의 첫 시 발표 작품인 「빛」에서는 계몽의 열망과 자각의식의 열기가 팽배해 있다. 여기서 '빛'은 근대적 정신에 눈을 뜬 근대인의 자각과 사명을 알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빛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선각자적인 의식을 일깨워주는 친구로 부르며 진작 빛을 만나지 못 한 자신의 몽매함을 후회하면서 아쉬워한다. 일찍이 나에게 찾아와 좋은 음악을 머리맡에서 불러준 빛, 이때의 좋은 음악은 화자의 귀를 밝게 하는 계몽적인 노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나혜석은 여성도 사람이라는 자각, 그 자각을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 실천에 뒤따를 모험과 실패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힘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법에 얽매인 종속적인 여성들의 삶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려는 한 시도였다.

시「人形の 家」에서는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여자도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1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사람이라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확신이 담겨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나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인간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관념의 억압성을 드러내어 해체하고자 하였다. 나혜석은 여성도 해방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이 작품에서 명철하게 밝히고 있다.

나혜석의 산문「母된 感想記」속에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모두 출산할 때의 느낌과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운율감도 뛰어나며, 특히 통증에 대한 묘사는 빠른 속도로 솔직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비유를 섞어 실감을 더해 준다.

이 글에서 모성이란 생래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동안 생겨나는 것이라며 모성을 부정했다. 나혜석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자신 있게 모성을 부정했지만, 나중에 그가 이혼의 위기에 처하고 아이들을 빼앗기게 되는 불안한 시점에서는 본능으로서의 모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혜석의 모성부정의식은 오늘날, 모성을 신비화하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모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제도적으로 강요된 관념이라고 보는 견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성 체험에서 여성 고유의 힘의 원천과 적극적 가치를 발견하면서 모성이 여성에게 기쁨과 만족, 창조성을 제공하며, 새로운 여성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1. 머리말

정월 나혜석(1896-1948)은 하나의 당당하고 독립된 여성으로 우뚝 서서 사회제도와 관습에 얽매어 숨쉬지 못 하는 여성들의 삶을 인간답게 살도록 일깨우며 앞장서서 싸우다 쓰러진 예술가이며 여성해방사상가였다. 그는 화가로서 작가로서 그의 사상을 마음껏 펼친 예술인이었으면서 여성들이 남녀차별의 가부장제사회의 속박으로 인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맨 몸으로 맞서 싸운 선각자였다.

나혜석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작게는 평생 타자로서의 부당한 여성적 삶에 쏠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는 다재다능한 활동가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시대에 도전하며 책임과 사명을 다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아갔다.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갑오개혁으로 조선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회오리 속에 있었다. 나혜석이 태어난 1896년에는 아관파천으로 일시 갑오개혁의 흐름이 지체되는 한편, 밑으로부터 개혁의 열기를 모은 독립 협회가 창설되어 자유민권사상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이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것 사이의 혼돈, 혹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과의 싸움, 혹은 부박한 새것과 완고한 낡은 것 사이의 혼란, 나혜석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갈등이 개인의 운명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운명의 시대에 태어났고 그 운명을 지고 살아간 여성이다.¹⁾

지금까지 나혜석에 관한 연구는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와 여성 해방론자로서의 면모 등 다각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평가되어 선구적 여성해방론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나혜석이 썼던 계몽적 논설뿐만 아니라 최근에 알려진 「母된 감상기」를 포함하여 「이혼 고백장」과 「신생활에 들면서」 등 당대 사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글들은 여성으로서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조선 사회를 살아간 구체적 경험에 근거해서 기존의 통념들에 도전하고 여성에 대한 '신화'를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며, 그의 파란 많은 삶은 그러한 자기의 이론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소설 「경희」(1918.3)만으로도 나혜석은 1910년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근대문학 최초의 여성작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²⁾고 평가받고 있다.

나혜석은 주로 산문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산문

1)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pp. 44~45 참조.

2) 이상경, 『나혜석 전집』(이하 「전집」이라 한다.), (태학사, 2000), p. 2 참조.

중간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그 내용을 강조하거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작품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가 잡지에 따로 발표한 시는 모두 다섯 편³⁾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나혜석의 시작품들을 중심으로, 그가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여성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계몽과 자각의식

나혜석은 1914년 『학지광』에 「理想的 婦人」이라는 글을 선보인 이래 여러 편의 산문을 발표한 후 1918년 「빛(光)」이라는 시를 『女子界』에 발표했다. 「빛」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최초의 시 작품이다.

그는 발-서 와서 내 옆에 앉았었으나 나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아아! 어쩌면 그렇게 잠이 깊이 들었었는지

그가 왔을 때에는 나는 숙수중(熟睡中)이었다

그는 좋은 음악을 내 머리맡에서 불렀었으나

나는 조금도 몰랐었다. 이렇게 귀중한 밤을 수없이 그냥 보내었구나

아아 왜 진시(趁時) 그를 보지 못 하였는가

아아 빛아! 빛아! 정화(情火)를 키어라.

언제까지든지 내 옆에 있어다오

3) 서정자 엮음, 나혜석기념사업회간행, 『정월 나혜석전집』, (태학사, 2001).

여기에 실린 시는 「光」, 「내물」, 「砂」, 「人形の 家」, 「앗겨 무엇하리, 青春을」, 「노라」 등 모두 여섯 편이다. 필자는 이 중 「人形の 家」와 「노라」는 같은 작품으로 보았다.

아아 빛아! 빛아! 마찰(摩擦)을 식혀라
 아무 것도 모르고 자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
 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라.
 이것이 깨워준 너의 사명이오
 개인 나의 직분(職分)일다
 어! 빛아! 내 옆에 있는 빛아!

-光- 전문

위 시에서는 나혜석의 다른 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계몽의 열망과 자각의식의 열기가 팽배해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잠자고 있는 화자를 깨운 빛은 근대적 정신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 시에서 빛의 의미는 근대적 정신에 눈을 뜬 근대인의 자각과 사명을 알게 하는 힘으로 느껴진다. 빛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선각자적인 의식을 일깨워주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부르며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진작 빛을 만나지 못한 자신의 몽매함을 후회하면서 아쉬워한다. 일찍이 나에게 찾아와 좋은 음악을 머리맡에서 불러주었는데, 이때의 좋은 음악은 화자의 귀를 밝게 하는 계몽적인 노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자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라”는 구절은 나(화자)를 자각시킨 이상 나를 열정으로 뜨겁게 달구어서 빛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 있으라는 강한 주문으로 이해된다. 당시 여성들의 계몽과 자각을 최대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앞서 달려간 나혜석은 시뿐만 아니라 소설과 수필, 논설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근대적 자각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이 시가 발표되기 전 『雜感』(1917)에서는 그때까지 여성에게 ‘미덕’이라고 강요되어 온, 빙긋 웃고, 살짝 돌아서며 말 안 하고 생각이 없는 것은 허구이며, 오히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미덕이라 하는 것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것이 자각한 여성의 임무임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므로 조선 여성

의 선각자는 여자가 너무 실친다는 욕을 두려워하거나 여자답게 안전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여성이 해야 할 사업을 못해서는 안 된다고, 여성도 사람이 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나혜석은 여성도 사람이라는 자각, 그 자각을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 실천에 뒤따를 모험과 실패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힘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법에 얽매인 종속적인 여성들의 삶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자 한 시도라고 하겠다.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갈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 **자손들을** 무엇을 주어 살리잔 말ियो?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यो?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지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오⁴⁾

바로 **후손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비난을 감수하기로 다짐하며 여성들을 자각시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희생을 각오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빛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빛을 잃은 삶이란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는 종속된 노예의 삶으로 볼 수 있다. 나혜석은 그러한 구속된 삶은 병등하지 않은 어두운 삶으로 빛을 비춰주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느낀다.

“이것이 깨워준 너의 사명이오/개인 나의 직분(職分)이다// 아! 빛아! 내 옆에 있는 빛아!” 이렇듯 ‘깨우고 깨이는’ 빛과 나의 소리는 **합창**을 이루며 사명과 직분을 다하기 위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해 보인다. 이는 계몽의식이 자아의 각성에 머무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사명으로 알고 조선여자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혼 이전까지 나혜석은 여성의 각성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각성은 문제를 인식하는 첫걸음일 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점에

4) 나혜석, 「雜感-K언니에게 輿論」, 『학지광』, 1917. 07.

대해서는 특별히 인식하지 못했다. 여자도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주의자로서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각성한 개인은 강고한 인습의 벽에 부딪혀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구조와 인습은 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혜석은 이혼 후 냉혹한 사회 현실에 내던져졌을 때에야 비로소 기존의 사회구조와 법률, 관습이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⁵⁾ 나혜석은 여성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고 시대에 항거하며 가부장제에 첫 도전을 감행한 실천적 신여성이었다. 그 모험과 각오의 일단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빛」이다.⁶⁾

3. 해방과 주체의식

나혜석이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외침은 다름 아닌 규범의 틀에서 해방되어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꿈 꾸는 것이었다. 그는 주체적인 삶을 떠나서는 온전한 해방이 없다고 인식하고 여성의 해방을 주체적이고 독립된 삶을 통해서 얻고자 노력하며 추구해 나아갔다.

(1)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5) 이상경, 앞의 책, p. 394 참조.

6) 구명숙, 「女子界」를 통해본 신여성 담론과 詩, 『여성문학연구』, 제 4호 (태학사, 2000.12.).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엄밀히 막아놓은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2)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뺏아시
사람이 되고저

(3)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을 다 혈어 맞보이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없는 것을
내 이제 깨도다

(4)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
많은 암흑 횡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는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위의 시 「인형의 家」는 1921년 4월3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작품으로 「빛」과 함께 나혜석의 대표시로 손꼽을 수 있다.

인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노리개의 역할에 안주해 있는 상태를 뜻한다. 1연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즉 남성들의 위안물로 존재해 있는 노라를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해방시키라 한다.

2연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의무가 있듯이 나를 위한 의무도 있으며, 곧 나를 스스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목표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 즉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는 데에 두고 있다.

3연에서는 분출하는 자유의지를 억제할 수 없도록 맞보며 사람으로 살지

못 하는 것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음을 깨닫는다. 마지막 연에서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나를 보아/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많은 암흑 횡행할지나/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라고 노래한다. 화자는 직접적인 언술로 소녀들에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미래의 여성으로, 어머니로 살아갈 소녀들에게 어둠과 폭풍우를 이겨내고 사람으로 살 것을 바라며 또한확신하는 대목으로 이 시의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화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여성 해방의 목표이기도 하다.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봉건적인 사회로부터 독립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 개성의 확립이 문학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시절에, 나혜석은 여성화가로서, 여성해방론자로서, 그리고 여성작가로서 언제나 자신이 내딛는 한걸음의 진보가 조선 여성의 진보가 될 것이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 아직 조선여성 대부분이 근대적 자의식을 가지기는커녕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대적 자아를 확립하고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나혜석에게는 혜택이면서 한편으로는 커다란 의무였던 것이다.⁷⁾

나혜석의 이 시에 나오는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나를 사람으로 만드는/사명의 길로 밟아서/사람이 되고저”라는 구절처럼 ‘사람이 되고저’라는 것이 나혜석이 여성으로서 추구한 평생의 목표였다. 사람이 되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확신이 담겨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나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책임을 다 하려는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도 사람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람답게 살도록 놓아주라는 것, 이것이 이 시의 주제이다.

7) 이상경, 앞의 책, pp. 35~36 참조.

여성에게도 자아가 있다는 것, 여성의 육체적 조건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공론화 시켜야겠다는 것, 그것이 물의를 일으키고 욕을 먹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역사에서 의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근대 조선 여성으로서 나혜석이 지닌 자의식이었다. 그러한 자신의 각오대로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꾸려갔다. 식민지 조선에서 자각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장애에 부딪히고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나혜석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성도 그런 인간으로 살 수 있으며 또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이상으로 여기는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나혜석이 생각한 이상적 여성은 합리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인간이다. 나혜석은 최초로 발표한 글 “이상적 부인”에서, 습관에 따라 세속적 본분인 현모양처를 이상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혜석이 살았던 시대 여성들에게 요구된 규범은 겨우 ‘삼종지도’를 벗어난 ‘현모양처론’이었다.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과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는 한 개체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봉건적 규범이었다. 그에 비하면 계몽기에 주창된 현모양처론은 여성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대 국민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여성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점에서는 근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자아와 개성에 눈뜨기 시작한 여성들에게 여성의 역할을 가정 안에 묶어두는 현모양처론은 새로운 굴레가 되었다. 그래서 나혜석은 현모양처를 내세우는 것은 교육자들이 상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며, 온양유순이란 것도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⁸⁾ 그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성도 그런 인간으로 살 수 있

8) 『전집』, pp.36-37 참조.

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해방이고 자신의 주체를 찾는 일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다.

4. 모성의식

남녀차별이 심한 시대의 사회이거나 평등의 세상이 도래한 사회에서나 여성의 특권은 출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우월하다고 하여도, 어느 남성도 그 부분은 대신할 수가 없으며 여성이 없이는 후손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도 여성은 출산에 따라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혜석은 아이를 낳고 나서 기쁨은커녕 서럽고 원통하다고 대성통곡했다. 다음 예시한 작품은 출산 후 병원 침상에서 스케치북에 썼다는 시의 일부이다.

아프다 아파
 참 아파요 진정
 과연 아픈데
 폭폭 쑤신다 할까
 씨리씨리다 할까
 딱딱 걸린다 할까
 쿡쿡 찌른다 할까
 따끔따끔 꼬집는다 할까
 찌르르 저리다 할까
 깜짝깜짝 따갑다 할까
 이렇게 아프다나 할까
 아니라 이도 아니라

박박 뼈를 긁는 듯
썩썩 뼈를 긁는 듯
빠작빠작 힘줄을 옥죄는 듯
쪽쪽 핏줄을 뽑아내는 듯
살금살금 살점을 저미는 듯
오장이 뒤집혀 쏟아지는 듯
도끼로 머리를 바수는 듯
이렇게 아프다나 할까
아니라 이도 또한 아니라.

조그맣고 셋노란 하늘은 흔들리고
높은 하늘 낮아지며
낮은 땅 높아진다
.....(중략).....
이 내 작은 몸
공중에 떠 있는 듯
구석에 끼여 있는 듯
침상 아래 눌러 있는 듯
오그라졌다 퍼졌다
땀 흘렸다 으스스 추웠다
그리도 괴롭던가!
그다지도 아프던가!

차라리
떨떨 뛰게 아프거나
굉굉 부딪게 아프거나
끔벅끔벅 기절하듯 아프거나

했으면
무어라 그다지
10분 간에 한 번
5분 간에 한 번
금새 목숨이 끊일 듯이나
그렇게 이상히 아프다가
흐리던 날 햇빛 나듯
반짝 정신 상쾌하며
언제나 아팠는 듯
무어라 그렇게
갖은 양념 가(加)하는지
맛있게도 아파야라

어머님 나 죽겠소
여보 그대 나 살려주오
내 심히 애길하니
옆에 팔장끼고 섰던 부군
“참으시오.” 하는 말에
“이놈아 듣기 싫다.”
내 악쓰고 통곡하니
이 내 몸 어이타가
이다지 되었던고

-1921년 5월 8일 산욕(産褥) 중에서⁹⁾

9) 나혜석, 「母된 感想記」, 『동명』, 1923.01-1.21.

나혜석은 침상에서도 그림과 글쓰기를 놓지 않았으며, 아이를 낳을 때의 통증까지 생생하게 한 편의 시로 적어 놓고 있다.

위의 시는 총 5연으로 이루어졌으며 「母된 感想記」속에 실려 있는데, 출산할 때의 느낌과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운율감도 뛰어나며, 특히 통증에 대한 묘사는 빠른 속도로 솔직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비유를 섞어 실감을 더해 준다. 그러면서도 4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온갖 출산의 고통을 갖은 양념을 넣은 것처럼 ‘맛있게 아프다’고 표현한다. 이는 골고루 엄청나게 아픈 정도를 맛으로 비유한 점도 탁월하며 역설의 미학이 돋보인다.

마지막 5연에서는 아이를 출산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와 남편에게 각각 하소하는 대목이 대화체로 표현되어 있다. 어머니에게는 나 죽겠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심히 애걸하니 옆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있던 남편이 “참으시오”하는 말에 “이놈아 듣기 싫다” 악을 쓰고 통곡을 하며 어찌다가 이런 몸이 되었는가 한탄하는 내용이다.

5연 6행의 “이놈아 듣기 싫다”는 표현은 아이를 낳게 한 남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강하게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어 거칠 것이 없는 그의 대답성이 충격적이면서도 여성들에게 시원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일상어와 비속어 등을 시에 그대로 구사하고 있는데, 그 행간에는 단지 출산 때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에 억압당하며 참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숨통을 잡시라도 띄어 주는 산소 같은 신선함이 들어 있다. 남편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내를 팔짱끼고 남의 일보듯 하면서 짹짹 ‘참으시오’ 한마디한다. 그 소리는 가부장제 하에서 군림하는 가장의 품위를 표출하는 목소리로 여성의 소리를 억누르는 권위로 상징된다.

나혜석은 산문 중간 중간에 시를 써넣어 맥락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미를 함축시켜 신선감을 더해 주며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여 활기찬 느낌을 준다. 나혜석이 주로 산문을 쓰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혜석은「모된 감상기」에서 그가 그 동안 살면서 겪어 본 병의 어떤 아픔에도 비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기진 맥진하였을 때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자신은 아픔이나 시원한 것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 대성통곡하였고, 다만 서럽고 원통할 뿐이라고 고백한다. 이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그랬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게 된 이유 때문일 수도,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듯 나혜석의 모성부정의식은 임신부터 출산의 진통과정에서 시작되고 초기 육아과정에서 심화된다. 그에게는 그림 그리고 글쓰는 일이 자신의 평생 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고유 영역은 이미 결혼조건으로도 철저히 확보해 놓았었다. 결혼 조건으로 내놓은 세가지 항목 중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는 결혼으로 발목을 잡혀 자신의 일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 할 것을 경계한 것이다. 출산을 통해 나혜석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별 일이 생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지만, 부부 중심으로 살며 자신의 일을 집중적으로 해오던 지금까지의 생활패턴이 아이를 중심으로 달라지자, 육아에 시달려 심신의 피곤함이 극도에 달했다. 그는 또한 수면 부족을 호소하며 ‘꼭 한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툇 놓고 잠 좀 실컷 자 보았으면 당장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았다’며 어머니 된 후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이런 요소들이 쌓여 어머니 된 기쁨보다는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결국 모성을 부정하게 된다.

세인들은 **항용**, 모친의 **애향**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머니 된 자 마음속에 귀하게 있는 것같이 말하나, 나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혹 있다 하면 제2차부터 **毋**될 때야 있을 수 있다. 즉 경험과 시간을 **경(經)**하여야만 있는 듯 싶다.(……) **숫는 정**이라는 것은 **순결성**, 즉 자연성이 아니오, **가연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종종 있는 유모에 맡겨 포육케 한 자식에게는 별로 어머니의 사랑이 그다지 **숫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¹⁰⁾

10) 나혜석, 위의 글

그래서 나혜석은 모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여성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교육되는 관념이며, 자식을 기르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정이라고 규정하였다. 더욱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천하게 여기는 풍습은 모성이 그렇게 생래적이고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았다. 모성을 절대시하고 신비화하는 그 수많은 전래의 언설들을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단호하게 부정할 수 있었고 남존여비의 인습까지 가차없이 비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자매애를 느끼게 되었다. 아마 이 인식이 나혜석으로 하여금 이후 여성으로서 겪어낸,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연애, 이혼 그리고 신생활에의 의지까지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적인 담론으로 만들어 내게 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해서 겪는 말하기 어려운 감정과 고통들을 앞장서서 말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의 입을 열게 하는 역할을 나혜석은 '선각자'로서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다.¹¹⁾ 나혜석이 모성을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교육된 관념'이라고 주장한 점 역시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나혜석의 이러한 주장은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통념에 순응하는 입장으로 방향이 기울어진다.

기백만인 여성이 기천 년 전 옛날부터 자식을 낳아 길렀다. 이와 동시에 본능적으로 맹목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무조건으로 자식을 위하여 바쳐왔나이다. 이는 여성으로서 낳 때부터 가지고 나온 한 도덕이었고 의무이었고 이보다 이상 되는 천직이 없었나이다. 그러므로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은 상대적이요 보수적이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은 절대적이요, 무보수적이요, 희생적이외다. 그리하여 최고 존귀한 것은 모성애가 되고 말았사외다.¹²⁾

11) 이상경, 앞의 책, pp. 219~220 참조.

12) 나혜석, 「이혼 고백장」, 『전집』 pp. 420~421.

이는 「모된 감상기」에서 출산의 고통과 힘든 육아과정의 체험을 들어 ‘자식이란 모체(母體)의 살점을 떼어 가는 악마’라고 까지 정의하며 모성의 신화를 신랄하게 부정해 보여 주었던 논조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모성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비록 자신의 경우는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모성애가 생기고 자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 갔다고 하더라도 사회 일반적인 모성애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발언이다.

나혜석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모성애는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니까요. 모성애를 잃는 에미도 불행하거니와 모성애에 길러지 못하는 자식도 불행하외다. 이것을 아는 이상 나는 이혼은 못하겠어요.”¹³⁾ 나혜석이 김우영에게 제시한 서로 헤어지지 못 할 네 가지 이유 중 두 번째가 아이들 문제였다. 자식 사 남매가 학령 아동인 만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우영은 “정말 자식을 못 잊겠다면 이혼 후 자식들과 동거해도 좋고 전과 똑같이 지내도 무관하오.”¹⁴⁾ 하면서 나혜석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그 손에 길러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속에서 나혜석의 경우에는 모성이 경험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는 네 아이를 기르면서 깊어진 모성애가 남다르며, 어떻게든 아이들을 맡아서 잘 길러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과연 하나 기르고 둘 기르는 동안 지금까지의 애인에게서나 친구에게서 맛보지 못하는 애정을 느끼게 되었었나이다. 구미만유하고 온 후로는 자식에게 대한 이상이 서 있게 되었었나이다. 아이들의 개성이 눈에 띄이고 그들의 앞길을 지도할 자신이 생겼었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길러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굴복하여 사죄하고 화해를 요구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

13) 나혜석, 위의 글, 『전집』, pp. 410-411.

14) 나혜석, 위의 글, 『전집』, p. 412.

고 말았구려¹⁵⁾

이혼 후에도 나혜석은 계속 아이들을 맡아 기르려고 애쓰며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미술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가고 싶었지만 뜻을 굽히고 그냥 주저앉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아이들 때문이었다. 멀리 떨어져서 몇 년간 아이들을 만나보지도 못 한다면 엄마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 할 것을 염려할 만큼 나혜석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혜석이 여자미술학사를 연 며칠 뒤 방인근 부부가 나혜석을 방문하였다. 방인근의 부인 전유덕은 나혜석이 온 방안에 그림이 가득한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틈틈이 아이들에게 입히려고 짜다가 놓은 자켓을 발견하고 “그의 모성애는 남달리 심각하였다”¹⁶⁾고 전한다.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모성애의 경험을 나혜석은 「신생활에 들면서」의 글에서 담담하게 밝히고 있다.

생이별을 하여 남의 손에 기른다면 역시 남의 자식과 똑같은 관념이 생긴다.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낳아서 기르는 데 정이 들고 그 모성애의 맛을 보는 것이니 아무리 남이 길러줄 내 자식일지라도 장성한 뒤 만나게 된다면 깊은 정이 없이 섬섬섬섬 하고 서어하게 되나니 이렇게 되면 타인과 조금도 다름없이 이해타산으로 그 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생모가 능력이 커서 그것으로나 정복하면 모르거니와 그 아이의 머리에는 이해타산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 그 자식들은 남편의 자식이 되는 것이요, 자식과도 역시 타인이 되고 만다.¹⁷⁾

나혜석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정이 깊어지고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크

15) 나혜석, 위의 글, 『전집』, p.421.

16) 방인근, 『최근일기』, 『삼천리』, 1933년 5월.

17)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년 2월.

다고 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모성에는 생래적인 것이기보다는 경험과 시간을 지나면서 생겨나고 쌓여 가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나혜석은 어떤 때는 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고 또 어떤 때는 모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타이르며 이성적으로 감정을 정리하여 누그러뜨렸다. 「모된 감상기」를 돌이켜보면 부모 자식간의 정이란 것도 후천적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자식들을 기르면서 정을 쏟고 나니 그것이 거의 본능과 같이 되어서 끊거나 억제하기 힘들었다.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이 질곡에서 나혜석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으로 그 애정을 충족시키려고도 해보았다. 그러나 둘 다 여의치 않았고 부대낌 때문에 나혜석의 심신은 더욱 병들어갔다.¹⁸⁾ 한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 순위인가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여자로서 자신의 개성과 주체성을 살려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가정을 잃게 되고, 가정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식들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닥쳐오자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정당하게 맞서 싸워봐도 사회를 변혁시키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였음을 체험하게 된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만 퍼부어지고 누구하나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많은 여성은 자기가 가진 이 모성에로 인하여 얼마나 만족을 느꼈으며 행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성에 얽매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 속에서 울고 있는 여성도 불소하되다. 그러면 이 모성에는 여성에게 최고 행복인 동시에 최고 불행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자기 개성을 잊고 살 때, 모든 생활보장을 남자에게 받을 때 무한히 편하였고 행복스러웠나이다마는, 여자도 인권을 주장하고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며, 남자만 믿고 있지 못할 생활

18) 이상경, 앞의 책, pp. 414~415 참조.

전선에 나서게 된 금일에는 무한히 고통이요, 불행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외다.¹⁹⁾

나혜석은 그 당시에 이미 일과 육아의 문제로 갈등을 느끼는 일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나혜석은 예술이 그의 ‘일평생의 위안이며, 생활의 전부이며 취미이며 직업’, 즉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술을 위하여 어머니의 직무를 잊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일과 육아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둘 다 잘 해내는 양립형, 즉 슈퍼우먼을 이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일이 취미이기는 하나 어린애를 기르며 살림하는 것도 꼭 재미있다고 할뿐만 아니라 어린애의 사랑에 대해서도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만약에 나에게 어린아이들의 뺨긋뺨긋 하고 웃는 얼굴과 엄마엄마하고 불러주는 기쁨이 없다면 도무지 생활이 건조무미하면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애처럼 귀여우며 매일 싫지 않고 볼수록 귀여운 것이 또 있을까요.²⁰⁾

나혜석은 아이들을 위해서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갈라지지 않기를 빌어다봤고, 어머니의 길에 집중하여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각오도 했다. 어머니의 길과 화가의 길에서 갈등을 한 적도 있으나 이 시점에서 나혜석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자기자신’ 까지도 잊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이혼 후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혜석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심신이 치명적으로 병들게 된다.²¹⁾

나혜석은 이혼한 지 1년이 되면서 “예술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생활 혼자만도 완전한 것이 못 되고 생활과 예술이 합치되는 데서 참된 완전이 온

19) 나혜석, 「이혼고백장」, 『전집』, p.421.

20) 나혜석, 「살림과 육아-그들의 취미」, 『매일신보』, 1930년 6월6일.

21) 이상경, 앞의 책, pp.366 참조.

다”²²⁾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어쩌면 나혜석이 파란만장한 선각자의 인생 역정에서 삶이란 조화라는 것을 터득한 것 같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혜석은 모성이란 생래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동안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상적으로 모성을 신비화해 온 전래의 관념을 깨뜨리고 자신의 실제 체험을 통해 기르는 과정에서 생성된 모성을 확실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던 나혜석은 이혼 무렵 아이들을 빼앗기게 되는 불안한 시점에 이르자 본능으로서의 모성을 절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나혜석의 모성부정의식은 오늘날, 모성을 신비화하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모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제도적으로 강요된 관념이라고 보는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모성체험을 통해서 여성 고유의 힘의 원천과 적극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모성이 여성에게 기쁨과 만족, 창조성을 제공하며, 새로운 여성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는 상반되는 편이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나혜석에 관한 연구는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와 여성 해방론자로서의 면모 등 다각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평가되어 선구적 여성해방론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나혜석은 주로 산문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산문 중간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그 내용을 강조하거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작품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22) 나혜석, 「이혼 1주년-양화가 나혜석 씨」, 『신동아』, 1932.11.

나혜석의 시작품들을 중심으로, 그가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여성의식을 살펴보았다.

그의 첫 시 발표 작품인 「빛」에서는 계몽의 열망과 자각의식의 열기가 팽배해 있다. 여기서 ‘빛’은 근대적 정신에 눈을 뜬 근대인의 자각과 사명을 알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빛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선각자적인 의식을 일깨워주는 친구로 부르며 진작 빛을 만나지 못한 자신의 몽매함을 후회하면서 아쉬워한다. 일찍이 나에게 찾아와 좋은 음악을 머리맡에서 불러준 빛, 이때의 좋은 음악은 화자의 귀를 밝게 하는 계몽적인 노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나혜석은 여성도 사람이라는 자각, 그 자각을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 실천에 뒤따를 모험과 실패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힘찬 목소리로 계몽과 자각을 외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법에 얽매인 종속적인 여성들의 삶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려는 한 시도였다.

시「인형의 家」에서는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여자도 사람이라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확신이 담겨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나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인간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관념의 억압성을 드러내어 해체하고자 하였다. 나혜석은 여성도 해방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혜석의 산문「母된 感想記」속에는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모두 출산할 때의 느낌과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운율감도 뛰어나며, 특히 통증에 대한 묘사는 빠른 속도로 솔직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비유를 섞어 실감을 더해 준다. 골고루 엄청나게 아픈 정도를 맛으로 비유한 점도 탁월하며 역설의 미학이 돋보인다.

이 글에서 모성이란 생래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동안 생겨

나는 것이라며 모성을 부정했다. 나혜석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자신 있게 모성을 부정했지만, 나중에 그가 이혼의 위기에 처하고 아이들을 빼앗기게 되는 불안한 시점에서는 본능으로서의 모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혜석의 모성부정의식은 오늘날, 모성을 신비화하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모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제도적으로 강요된 관념이라고 보는 견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성체험에서 여성 고유의 힘의 원천과 적극적 가치를 발견하면서 모성이 여성에게 기쁨과 만족, 창조성을 제공하며, 새로운 여성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 했다.

시를 통해서 보여준 그의 자각과 해방과 주체적인 여성의식의 이미지들 역시 여성해방을 위한 강한 메시지였다. 시, 소설, 논설 등 여러 장르에 걸쳐서 작품을 발표한 나혜석의 문학적 평가는 앞으로 분야별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세계가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필자: 숙명여대 교수

참고문헌

- 구명숙, 「女子界를 통해본 신여성 담론과 詩」, 『여성문학연구』 제 4호, 태학사, 2000.12.
- 나혜석, 『雜感-K언니에게 興함』, 『학지광』, 1917. 07.
- _____, 「모된 감상기」, 『동명』, 1923.01.1-1.21.
- _____,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년 2월.
- _____, 「살림과 육아-그들의 취미」, 『매일신보』, 1930년 6월6일.
- _____, 「이혼 1주년-양화가 나혜석 씨」, 『신동아』, 1932.11.
- _____, 날아간 靑鳥, 신흥출판사, 1981.
- 방인근, 「최근일기」, 『삼천리』, 1933년 5월.
- 서정자 엮음, 나혜석기념사업회 간행, 『정월 나혜석전집』, 태학사, 2001.
- 이구열, 에미는 先覺者였느니라, 동화출판사, 1974.
- 이상경,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_____, 『인간으로 살고싶다』, 한길사, 2000.

Abstract

A Study of Female Consciousness
in the Poems of Hye-Seok Na

Koo, Myong-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female consciousness in the poems of Hye-Seok Na.

Even though Hye-Seok Na is renowned for her prose, she inserts poems into her prose from time to time to reinforce a given theme or to avoid dullness and effect variation. In this paper, focusing on her poems, which have not yet been actively discussed, I examine her female consciousness, discussing how deeply she thinks about what it means to live as a woman and how earnestly she strives to overcome the problems she has had to face.

Her first published poem, *Light*, is pervaded with her fervor for enlightenment and her excitement with self-awakening. Here the “light” symbolizes the power which led the moderns, who were awakening to the spirit of the times, to self-awareness and a sense of duty. Personifying the light, which she calls her friend, she feels sorry that she couldn’t meet her earlier, regretting her ignorance. It is said that the light came to her and sang wonderful songs at her bedside. Here the wonderful songs are those of enlightenment which make the eyes of the speaker open in the poem.

Hye-Seok Na lifted up her voice, standing firm with her awareness that women are also human beings, revealing her sense of responsibili-

ty in making her convictions come true, and her willingness to face risks and failures. She attempts to strip off the heavy burden imposed on women whose lives have been marginalized under their fathers' rules.

The House of a Doll cries out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and encourages them to live as autonomous human beings. The poem argues that women are also human beings and that they should help themselves to live as such. It criticizes the society which makes it impossible for women to live as human beings and argues that not only men but also women have rights to be respected, and thus reveals and dismantles the oppressive ideology of society.

There are two poems in Hye-Seok Na's essay On Motherhood. Both of them describe in detail the experience and pain of childbirth. She gives vivid descriptions based on her own experiences with an outstanding sense of rhythm. She speeds up the description of pain and makes the sensation real, using straightforward and vivid metaphors.

In the essay, she disapproves of motherhood, claiming that it is not innate but formed in the course of nurturing. She does not believe in motherhood based on her own experiences. However, she later admits to the maternal instinct when she faces divorce, with her children about to be taken away from her.

Hye-Seok Na's denial of motherhood can be seen in the context of the opposition of romanticizing motherhood today, which is instead viewed as enforced by the institution of patriarchy. However, she does not go so far as to embrace motherhood as the source of women's own power and values, which offers women joy, satisfaction and creativity.